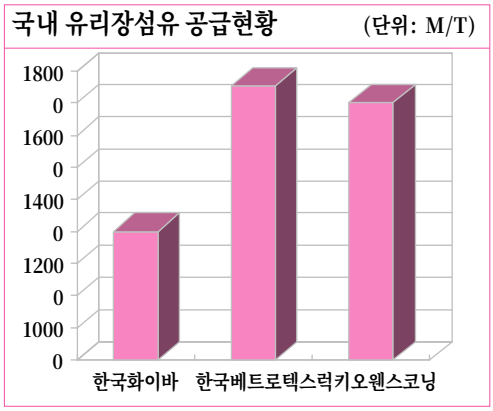
유리장섬유 시장 "호전"

반덤핑관세 부과이후 수요증가 … 호황지속 전망

국내 유리장섬유 시장이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유리장섬유 수요는 4만여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리장섬유는 플래스틱제품의 보강재·전기절연재로 사용되는 섬유형태의 유리로 낚시대·텐트·인쇄회로기판 등의 중간원료로 쓰이고 있다.

유리장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94년 4월12일부터 소급 적용돼 5년간 부과되는데 10.3~58.7%까지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 시장은 공급과잉이던 94년초와는 달리 94년 중반이후 수요가 증가해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품과의 가격경쟁으로 곤두박질치던 가격에 현실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가격상승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95년초에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리장섬유 시장은 공급과잉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5개월간 100%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2년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4년 유리장섬유 생산은 방사량 기준으로 7000~8000톤, 럭키오웬스코닝 1만7000톤, 한국베트로텍스 1만6000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장섬유는 Yarn, Roving, Chopped Strand, Chopped Strand Mat 형태로 나뉘어지며, Yarn은 합성수지·종이·절연테입 등의 강화제로 사용되며, Roving은 유리장섬유중 가장 다양한 용도로 직조용·연속합침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말 현재 내수가는 Yarn이 Kg당 2000 원, Roving 1500원, Chopped Strand 1500원, Chopped Strand Mat가 185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95년은 시장이 호전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5/1/23>